

# 腰痛證의 治法 治方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 珍 泰

## I. 緒 論

人間이 네발을 使用하여 活動할 때는<sup>1,2)</sup> 대들보로 使用되어질 脊椎가 두발로 直立하여 活動함으로 기둥으로 쓰이게 됨으로 因하여 脊椎 특히 腰推部는 계속적인 힘이 加해짐으로써 가장 흔하게 經驗하는<sup>3,4)</sup> 疾患 中の 하나가 腰痛으로 볼 수 있다.<sup>5)</sup>

現代生活은 利器의 發達로 因하여 걷는 것이 점점 줄어들므로써 身體弱化和 더불어 脚力이 떨어지고, 脚과 腰는 密接한 關係에 있음으로, 步를 避하는 生活勢를 是正하지 않는 한, 文明病 中の 하나로 볼 수 있는 腰痛은 더욱 增加할 것이다.

腰痛이란 腰部(誇之上脇之下爲腰<sup>6)</sup>, 第二 및 第三 腰推間으로 부터 腰薦關節 및 腸薦關節까지의 部位<sup>7,8)</sup>에 나타나는 諸痛症을 一括하여 말하는 데, 이는 單純한 症狀을 表現할 뿐 어떤 特定病名이나 症候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東醫學에선 「腰脊者身之大關節也<sup>9)</sup>」, 「腰者腎之府<sup>10)</sup>」라 하여 腰脊이 一身의 主軸이 됨을 말하고 있고, 또한 모든 經絡이 腎을 貫通해서 腰脊에 連結<sup>11)</sup> 되어 있으므로 腰脊의 治療가 諸病證에서 상당히 重要함을 東醫學에선 力說하고 있다.

腰痛은 어떤 年令層에서도 發生할 수<sup>14)</sup> 있으나 25-50 세 年代에서 多發하며, 痛症으로 因하여 많은 苦痛과 活動 能力 低下를 가져오기 때문에 腰痛에 關한 研究는 早期의 正確한 診斷 및 適切한 治療를 爲해서 重要한 課題가 되고있다.

이에 著者는 歷代 醫家들의 腰痛에 對한 治

法·治方에 對해서 主要醫家說을 分類 調査하여 報告하는 바이다. 理解를 돕고저 病因·病證에 대해서도 添加한다.

## II. 歷代 醫家說

內徑에서 ... 22, 傷科學까지의 醫家說 省略

## III. 總括 및 考察

腰痛에 對해서 第一 먼저 敘述한 <內徑>에서는 “腰者腎之府 腎氣烈則腰脊不舉<sup>58)</sup>”라 하여 腎病에는 腰痛이 多發함을 이야기하였는데 後世醫家들이 거의 다가 이 說을 引用하였다. <熱論>에서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失項腰脊痛<sup>59)</sup>”이라 하여 外感初期에서 뿐만 아니라 六經脈症<sup>60)</sup>에서 腰痛症을 說明 하였는데 特히 六氣 中에서는 寒과 濕이 主病因이 됨을 主張하여 後世에 있어서 虛寒濕의 病因을 三因으로 統稱되어 왔다. 또 內徑에서는 腰脊痛 腰尻痛 腰股痛 등으로 比較的 詳細하게 腰痛의 部位 및 放射範圍 등에 對해서 敘述 하였다.

治療方法에 있어선 主로 針刺治療法<sup>61)</sup>에 對해서 敘述하고 方藥에 對해서 言及이 없었으나 病因의 根本이 腎虛에 있음을 主張하여 後世醫家들이 거의가 同調하고 있음을 볼 때, 本治에 主力하였음을 類推하여 볼 수 있다.

後漢代의 張仲景은 <金匱要略><sup>28)</sup>에서 “腎者之病 其人身體重 腰中冷如 坐水中形如水狀...”이라하여 腎著의 病名을 처음으로 使用하였는데 이는 病이 下焦에 있고 寒濕으로 因하여

惹起됨을 말하고 있으며 이에 處方으로는 甘姜蒼朮湯으로 主之라 하였고 虛冷腰痛少腹作急小便不利者八味慎氣園으로 主之하라 하였는데 위의 두 處方의 方劑로서는 補身·溫腎·散寒利濕 등의 治法을 講究하였다고 할 수 있다.

隋代의 巢元方은 <諸病源候論>에서 腰痛을 “一日少陰 二日風痺 三日腎虛 四日臍腰座 五日寢臥濕也”<sup>30)</sup> 등의 腰痛의 五種病因說을 主張하여 後世 醫家들이 많이 引用하였으며, 이中 腎經虛損이나 勞損于慎 時에 風冷이 乘之하여 所侵함으로 腰痛을 發한다 하여 腰痛의 根本因은 腎虛로 보았다. 特히 巢는 證候分類에 있어서 “突然發作者卒腰痛 反復發作經久不愈者稱久腰痛”이라하여 가장 처음으로 急性性으로 腰痛을 分類하였다.

唐의 孫思邈은 <千金要方><sup>31)</sup>에서 巢<sup>30)</sup>의 腰痛의 五種 病因說을 거의 다 受容하였으며, 腰背痛者 皆由慎氣虛弱와 冷濕地 當風得之”에 獨活寄生湯을 處方하였는데 이 處方은 本標症을 兼한 病症에 補腎과 祛風濕 補氣血하는 治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特히 注目하여야 할 것은 腰痛의 治療方法에 있어서 처음으로 導引法을 主唱했는데 이는 近代의 正骨手法이나<sup>31)</sup> 物理治療의 先驅者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宋代의 嚴用和의 <濟生方><sup>32)</sup>에서는 內徑에서의 腰痛이 腎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說에 同調하고, 나아가 腰痛의 病因을 “嗜欲過度 勞傷腎經 腎臟既虛 喜怒憂思 風寒濕毒 墜墮閃肭 氣凝血滯” 등으로 舉論하였으며, 特히 辨證에 있어서 “脈沈弦而緊者寒, 沈弦而浮者風, 沈弦而濡細者濕” 등으로 區別하였는데, 治法에 있어서도 病因과 其 脈症을 같이 생각하여 臨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元代의 李昊의 <東垣十書><sup>33)</sup>에서는 內經의 虛가 本이고 風·熱·濕·燥·寒 등이 標로서임을 다시 說明하고 特히 寒濕으로 因함이 많고 風

熱로 因함은 적다고 했다. 腎虛症 中에서 陽不足에는 腎氣丸·茴香丸으로 補陽해야 하며, 陰不足에는 六味·滋腎丸類으로 補陰해야 함을 主張했고, 針刺에 있어서 經絡이 經過하는 穴과 그에 相當하는 寒熱藥을 適用해야 함을 力說하고 特히 太陽腰痛에 太陽經에 出血시킴을 豫示했으며, 濕熱腰痛엔 乾姜活絡濕湯을 提示했다.

元代의 朱震亨은 <丹溪心法><sup>34)</sup>에서 腰痛의 發病 原因을 濕熱·腎虛·瘀血·挫閃·痰積 등의 五因을 들면서, 濕熱者 遇天陰或久坐而發, 腎虛者 疼之不已者, 瘀血者 日輕夜重者是也, 등으로 辨證하고 特히 腰痛의 病因 中에는 腎虛가 第一의 原因으로 보았다.

治法에 있어서는 氣痛엔 木香 등으로 行氣시키고, 寒濕엔 五積散, 腎虛엔 大建中湯, 閃挫엔 復元通氣散이나 五積散으로 治療하나 酒로서 兼用함이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久腰痛엔 반드시 官柱로 升之해야 함을 述했으며, 腎虛엔 杜·龜版·柏·知·枸·五味子類로써 治療하고, 瘀血에는 補陰丸에 桃·紅花, 濕熱엔 蒼·杜·栝<sup>11)</sup> 川芎類를, 痰積作痛엔 二陳湯 加 南·半·夏하고, 腰曲不能伸者是 刺人中하라 했다.

朱의 學說 中 여러 醫家들에 의해서 줄곧 批判 되어 온 學說은 “諸痛皆屬火 而寒涼峻 補藥不可用 必用溫散之藥 諸痛不可用 人參 蓋人參補氣 氣旺不痛 則痛愈甚 人之痛面上 忽見紅點者 多死” 說인데 卽 諸痛에는 補氣함으로 해서 氣旺해져 循環障礙가 惹起됨으로 해서 人參 같은 藥은 함부로 쓰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朱의 獨特한 理論이나, 諸腰痛에 絶對的인 句節은 아니라고 思惟한다

明代의 虞搏은 <醫學正傳><sup>35)</sup>에서 腰痛의 病因을 挫閃·瘀血·風寒·濕痰으로 보고 그 原未由因은 房勞過度와 負重勞傷의 所致로 보고 亦是 本은 氣虛에 있음 內徑說을 引用하여 主張했다.

治法에 있어선 虛者補之함에 杜·栝·肉·當·五  
味·黃·天門으로 하고, 風者散之함에 麻·防風·  
羌活·獨活之類로 하며, 寒者濕地함에 肉桂·姜  
黃·附子之類로 하고, 挫閃者 行之함에 當·蘇  
木·乳香·沒·桃·紅花로 하며, 瘀血者 逐之함에  
大黃·牽牛·桃仁·水蛭類로 하고, 濕痰流注者 消  
導함에 蒼·香·芷·只實·陳·半·茯苓 等<sup>36)</sup>으로  
治한다 하였다.

明代の 戴思恭은 <證治要訣><sup>37)</sup>에서 腰痛을  
瀝血痛風通·血虛·腎虛·閃撲으로 分類하여 敍  
述하였는데 이들을 要約해보면 瀝血通은 血滯  
腰間에 如錐刀所刺 便黑 溺赤黃證候를 말하는  
데 桃仁酒洞黑神散의 治方을 述했고, 風痛은  
症候가 或左或右하여 常處가 無함을 이기렸는  
데, 이에 五續散·小東命湯·獨活寄生湯·三仙  
丹 等の 治方을 列舉하고 特히 杜仲酒를 空心  
服하면 大好하다 하여 酒도 治法에 助力함을  
提示하였다. 血虛證은 去血過多나 素血虛者에  
서 多見할 수 있는 證으로 마땅히 補血해야  
함을 主張했으며, 腎虛腰痛엔 大建中湯·腰腎  
丸·生料鹿茸丸 等を 提示하였고, 閃撲腰痛엔  
黑神散·復元通氣散 等を 酒와 併用하라 하였  
고, 不效則 血滯가 甚함으로 蘇合香丸을 酒로  
서 用하고 五續散을 處方하였는데, 藥을 服用  
함에 酒로서 藥效를 倍加시키려 했음이 他醫  
家에 比해 特異하다 할 수 있겠다.

明代的 李中梓의 <醫宗必讀><sup>38)</sup>에서는 腰痛  
證을 感寒·傷濕·風痛·熱痛·閃挫·瘀血·氣滯·痰  
積·腎虛 病證으로 分해 敍述하였는데, 內徑說  
에 同調 하여 其 根本은 腎에 있고 他 病因들  
은 標라고 하였다. 治法에 있어선<sup>39)</sup> 感寒 腰  
痛에는 五續散·姜府湯으로 治하는데 外用으로  
摩腰膏의 處方이 特異하다.

傷濕腰痛에는 滲濕湯·腎著湯·獨活寄生湯 等  
으로 述하고, 風痛엔 五續散·小續命湯을 酒와  
併用하라 하였으며, 戴思恭의 뜻에 同調하여  
牛膝酒을 提示하였다. 熱痛에는 甘豆湯으로  
閃挫에는 乳香鎮痛散·黑神散·復元通氣散을 亦

是 酒와 併呑하고, 瘀血엔 調榮結絡飲이나 桃  
仁酒로 黑神散과 服用함을 提示했으며, 氣滯  
엔 人蔘順氣散·烏若順氣散으로 順氣하고, 痰  
積엔 二陳湯로 治療하며, 腎虛腰痛에는 寒熱  
證으로 區分해 治하는 데 寒證에는 神氣丸·茴  
香丸·茸·羊腎을 用하며, 虛火炎證엔 六味丸·  
封髓丹을 提示 하였다.<sup>40)</sup>

明代的 李梴의 <醫學入門><sup>41)</sup>에서는 外感腰痛  
·腎虛·濕熱·風邪·內傷七情·濕痰·飲食 滯鬱·  
內挫瘀·作勞傷腎·色慾傷腎 腰痛으로 區分하여  
說明하였는데, 作勞나 色慾으로 傷腎함과 腎  
虛證을 列舉함을 볼 때 腰痛의 根本病因이 腎  
에 있음을 例示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他  
意家에서 一切說이 없었던 飲食滯鬱 腰痛證을  
敍述함이 浮刺되어 진다.

治法에 있어서는 外感 太陽證엔 人蔘順氣散·  
敗毒散·通氣防風湯으로 治하며 特히 三稜針으  
로 委中을 出血함이 特徵으로 보여진다. 이  
說은 元大 李昊의 太陽腰痛에 있어서 太陽經에  
出血시키는 治法과 더불어 異色的인 治療方法  
으로 보여진다. 또 傷寒엔 五續散·于黃嗜建中  
湯·當歸四逆湯·通氣防風湯·摩腰丹을 列舉하였  
고, 屈伸導法을 主張하였는데 이는 當代 孫  
思邈의 導引法에 同調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

腎虛腰痛을 說明함에, 腰痛久則 補腎理氣해야  
함을 主張하고 어떤 病因이든 腎虛한 틈을 타  
고 入함으로 補腎에 主力해야 함을 敍述하였  
다. 또 腎虛證엔 涼藥이나 蔘茸같은 補氣시키  
는 藥을 純全히 使用함을 警戒하였는데 이는  
元代的 朱辰亨의 說을 追從하였다고 할 수 있  
다. 濕熱腰痛에는 腎著湯·五苓散·滲濕湯·單角  
茴散 等を 提示하였으며, 久不已時엔 單牛膝  
侵酒服 青娥丸이라 하여 앞서와 같이 酒로써  
治療함으로 效果를 倍加 하려는 努力을 볼 수  
있다. 또 虛者 七味蒼栝散, 實者 二妙蒼栝散  
溺赤者 五苓散·清燥湯으로 治療하되, 不效時  
는 甘遂·牽牛 等으로 大瀉시켜 濕을 除去하는

使法을 主張하였다. 風邪로 인한 腰痛中 風熱엔 敗毒散, 風虛엔 小續命湯·烏藥順氣散, 寒挾風엔 五積交加散·獨活寄生湯·姜活腥濕湯 등을 提示했으며, 單威靈仙末을 酒와 더불어 調服하는 方을 述했다. 內傷七情으로 인한 腰痛에는 七氣湯, 虛者는 人蔘養榮湯으로 心腎을 補하고, 思憂傷脾엔 沈香降氣湯·木香潤氣散으로 治療하며, 七情外感挾者는 人蔘順氣散·烏藥順氣散·七香丸 등으로 處置하고, 濕痰으로 인한 腰痛에는 二陣湯·控涎丹·龜得丸 등으로 處方하며, 飲食滯鬱엔 四物二陳湯·速效散·加味龍虎散으로 滯鬱을 解鬱하고, 閃挫 跌撲엔 마땅히 行血順氣해야 하는데, 實者는 桃仁承氣湯·久則補陰丸·五續散 등의 處方을 提示했다. 作勞傷腎으로 腰痛엔 黃氣健中湯·四物湯·大補陰丸·天王補心丹 등의 治方으로, 色慾傷腎으로 인한 腰痛엔 杜仲丸 補陰丸을, 陽虛엔 九味安腎丸·鹿茸百倍丸·八味丸·溫腎丸·豬腎酒 등의 治方을 提示 하였다.

明代의 龔信은 <古今醫鑑><sup>42)</sup>에서 瘀血腰痛에 三稜針으로서 委中穴에 出血함으로 其血滯을 下케 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川芎肉桂湯으로 治方을 내렸으며, 腎虛엔 安腎丸, 陰火腰軟엔 栝·防己를 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明代의 張三錫은 <醫學準繩六要><sup>43)</sup>에서 腰痛을 八가지로 區分하여 說明하였는데 먼저 濕熱腰痛에 있어선 마땅히 當歸拈痛湯으로 滲濕清熱시켜야 한다 하고, 濕痰腰痛엔 肥人에게 多現하는 바 加味豁痰湯으로 快氣豁痰시켜 痰이 氣運을 따라 除去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除濕丹·滲濕湯·導痰湯 등의 治方을 提示 하였다.

閃訥腰痛에는 乳香 沒藥末을 먼저 술과 더불어 飲用하고, 그 다음 行血氣하는 藥으로 復元通氣하라 하고 甚時 五積散의 治方을 提示 하였다. 瘀血腰痛엔 加味四物類로 順氣活血하되 氣實者는 承氣湯類로 敢히 瀉下시켜야 한다고 敍述하였다.

腎虛腰痛엔 四物補腎丸·清雅丸 등으로 滋腎해야 하고, 腎虛에 邪氣가 挾한 卽陳皮 當歸甘遂 등으로 酒下하여 먼저 其邪를 除去 해야 한다고 述하였다.

陰虛腰痛엔 四物類로 補養兼利肢節해야 하는데, 有火則 知母를 加하고 甚者는 十補湯·青娥丸으로 治한다 했다.

外感으로 인한 風傷腰痛엔 杜仲酒服이나 牛膝酒로써 風毒을 急히 攻하라 하고, 風寒濕으로 인한 腰痛엔 五續散에 羌活爲主로 治方을 定했다. 張은 또 諸腰痛甚者 不可用補氣藥 初必溫散和血 快氣 해야 한다는 朱震亨의 學說에 同調하고, 먼저 濕散·和血·快氣하고, 後에 四物類에 牛膝 杜仲 등의 補腎藥을 處方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氣滯腰痛엔 解鬱시키는 木香流氣飲 등의 治法을 쓰고 日久則 理氣養血하는 治方을 講究 하여야 함을 論했다.

明代의 方賢의 <寄效良方><sup>44)</sup>에서 內徑에서 主張한 六經病證 등을 論하면서 이에 針刺法으로 治療함을 거듭 敍述하면서 六經腰痛者는 主로 外因으로 誘因되며, 矢志傷腎 鬱怒傷肝 憂思傷脾 등으로 인한 腰痛證은 內因으로 因해서 腰痛이 發生한다고 論하면서, 腰痛의 病因에 있어서는 風寒濕·蓄熱·矢志·房勞·墜傷·閃訥·氣滯·血滯 등의 原因을 念頭에 뒤야 하며, 諸病源候論과 內徑의 五種三因의 病因說을 重視해야 하고, 治法에 있어서도, 여러 病因을 철저히 찾아 그에 合當한 汗·下·補·瀉法을 講究하여야 한다고 論述하였다.

明代의 吳崑은 <醫方考><sup>45)</sup>에서 腎은 水火之司로 人體의 根本으로 腎이 堅固함은 木의 根이 堅固함과 같다하여, 腎虛엔 모름지기 清娥丸 등으로 本治에 主力해야 主張했다. 또 腎氣虛弱하여 肝脾臟에 까지 影響을 미친 腰膝作痛屈伸不便하고 冷痺 無力의 病症에는 升舉肝脾之氣하는 獨·寄生·細·秦·防風·桂心 등의 辛溫藥과 滋補肝腎之陰하는 堂·熟·芍·川·

杜·牛膝 等の 養陰藥과 益氣하는 人蔘·茯·甘草 等の 藥物로 成立된 獨活寄生湯을 提示하였다.

明代의 張景岳은 <景岳全書><sup>47)</sup>에서 腰痛의 原因을 腎虛·濕·熱·寒·氣虛·氣滯·氣衰 等으로 보면서, 이를 잘 辨別하여 治療에 臨해야 됨을 主張했다. 特히 景岳은 腰는 腎之腑로서 衝任帶督脈이 會合하는 곳이므로 무릇 腰痛은 眞陰不足에서 오므로 마땅히 補腎에 主力해야 됨을 力設하고, 虛症이 十에 八九이며 實邪로 인한 腰痛은 稀少하다고 論했다.<sup>48)</sup>

虛症을 細分하였는데, 寒症을 마땅히 溫散하여야 할 外感之寒證과, 마땅히 溫補하여야 할 內傷陽虛之寒證으로 區分하고, 熱證에 있어서도 滋陰八味煎이나 四物湯으로 滋陰降火해야 할 肝腎陰虛 水毀火盛證과 大分清飲으로 直攻其火해야 할 邪火蓋結腰腎證으로 나누어 論述했다.

腎水眞陰毀損엔 當歸地黃飲·左歸丸·右歸丸·青娥丸·溫腎散類를 들었고, 腰痛表症은 마땅히 解散 시켜야 하는데, 陽證多 熱者는 一柴胡이나 二柴胡飲으로, 陰證 多寒者는 二柴胡飲·五積散類로, 濕滯在經 腰痛者는 不換金散·平胃散으로 濕兼虛者는 獨活寄生湯으로, 濕滯小水不利엔 胃冷湯·五苓散, 風濕相兼엔 姜活厘濕湯, 濕兼寒에 五積散類로 治해야 됨을 力說하였다.

張은 特히 丹溪의 諸腰痛不可用參補氣補氣則疼愈甚亦不可峻用寒涼...<sup>48)</sup> 說에 對해서는 論說하길, 무릇 勞傷虛損해서 陽不足時는 氣虛證이 많은데, 이때 어찌 人蔘을 쓰지 못한다 말인가 하고, 또 火隨下焦하여 痛極하여 不可忍者는 마땅히 速히 清火하여야 하는데, 어찌 寒涼한 藥을 絶對로 쓰지 못한다 말인가 하고 丹溪의 學說을 辛辣하게 批判했다.

清代의 <張氏醫通><sup>49)</sup>에서는 腰痛의 根本原因은 腎虛가 本이고 風·寒·濕·熱·閃挫·瘀血·痰積 等の 病因은 標라고 하여 內徑以下 여러

醫家說에 同調하였으며 治法에 있어선, 風痛者는 小續命湯으로, 寒痛엔 乾姜附子湯과 外用엔 摩腰膏, 兼風寒엔 五積散으로 微汗시키고, 風熱痛에는 小柴胡湯으로 하되 만약 便閉者는 大柴胡湯으로 利하며, 濕痛엔 滲濕湯, 腎虛由臥濕池엔 千金獨活寄生湯 等으로 治療에 臨하고 閃挫痛엔 復元痛氣散, 氣滯痛엔 烏藥順氣散·八味順氣散, 痰痛에는 導痰湯으로 對處하며, 肝氣不條達로 인한 腰痛엔 柴胡疏肝散類, 腰痛牽引足膝 補腎補肝엔 青娥丸으로, 小便清利한 兩虛腎虛證 腎氣丸 加 巴·肉從·補骨·茸 等으로 處方하고, 小便黃하고 脈細數한 陰虛火炎時엔 六味加 當·杜·續으로 治法을 論述하였다.<sup>50)</sup>

清代의 <醫學心悟><sup>51)</sup>에서는 醫宗必讀說의 腎虛가 腰痛病因의 本이고, 他病因들은 標라는 觀點에는 同調하고, 寒과 風腰痛에는 獨活湯으로, 濕腰痛엔 蒼白二陣湯, 傷挫跌撲으로 인한 瘀血腰痛엔 澤蘭湯主之 하고, 氣滯엔 橘核丸, 痰腰痛에는 加味二陳湯으로 對處하며, 脈細弱 無力한 虛腰痛엔 加味六君子湯主之 하고, 兼陰冷更時는 八味丸으로 佐한다 하며, 陽虛 卽 命門之火不足의 腎虛腰痛에는 八味丸主之하고, 虛火上炎으로 인한 陰虛證은 마땅히 先天之水를 補해야 하므로 六味丸合補陰丸之類로 主之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sup>52)</sup>

清代의 <雜病源流屬燭><sup>53)</sup>에서는 腰痛原因을 風·寒·濕·熱·痰·氣滯·死血·閃挫의 區分하였는데 他 醫家와 같이 精氣虛 腎虛가 本이고 他 病因들은 標라는 설에는 一致하고 있다. 六氣로 인한 腰痛에는 寒濕이 가장 많고, 治法에 있어선, 風腰痛에는 防風蒼朮湯主之하되 風冷通에 牛膝酒의 防은 歷代醫家의 說과 같다. 寒腰痛엔 姜附湯, 兼濕엔 五積散加味하고, 濕通엔 腎著湯·獨活寄生湯·姜活厘濕湯으로 主之하며, 熱痛엔 甘豆湯으로, 痰痛엔 加味二陳湯, 氣滯엔 烏藥順氣散으로, 死血痛에는 調榮活絡湯, 閃挫跌撲痛엔 乳香續痛散, 勞役負重

痛엔 十全大補湯·青娥丸, 失志痛엔 牛·杜·菖·遠·茯·沈·乳香으로 主治하고, 陽虛屬寒의 腎虛證엔 마땅히 茸·肉從·巴·補骨·川椒·附·茴·肉桂 等の 溫補藥으로 處方하고, 陰虛한 腎虛證엔 六味丸에 加 芍·歸·栝·龜板·芍·杜·丹參·續斷類로 主治하다고 論述했다.

朝鮮의 許浚은 <東醫寶鑑><sup>54)</sup>에서는 腰痛病 症을 十가지로 辨別하여 區分 하었는데, 歷代 醫家의 學說을 綜合하여 十가지 腰痛證으로 要約하여 놓았다고 볼 수 있다. 治法에 있어 서 導引法을 提示함이 特徵으로 보아진다.

近來의 黃文東等の <實用中醫內科學><sup>62)</sup>에서는, 腰痛의 病因을 外感으로서는 寒濕·濕熱·風寒·風熱·風濕 等を, 內傷으로서는 腎虛·脾濕·肝鬱·瘀血 等の 네가지를 들어 論述하였는데, 外感病因 中에서는 寒濕으로 基因함이 第一 많고, 風熱로 因함은 少하다고 하였다.

治法에 있어서는 먼저 寒濕腰痛엔 祛寒行濕 溫經通絡하되 甘姜芎朮湯·滲濕湯으로, 濕熱腰痛은 加味二妙散 等으로 清熱利濕 舒筋止痛하며, 濕痰腰痛엔 龜樗丸 等으로 祛濕化痰하며, 風寒腰痛엔 人蔘敗毒散類로 發散風寒하고, 內熱腰痛엔 小柴胡湯類로 疎散風熱하며, 風濕腰痛엔 獨活寄生湯으로 祛風利濕하고, 腎虛腰痛엔 먼저 腎陽虛者는 青娥丸等으로 溫腎補腎爲 主하고, 腎陰虛者는 當歸地黃丸으로 滋腎益陰하며, 脾濕腰痛者는 平胃散類로 健脾利濕하고, 肝鬱에는 沈香降氣湯方으로 調肝行氣하며, 瘀血腰痛에는 活絡效靈丹 加味로서 活血化瘀 理氣止痛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其他治法으로서는 推掌法을 提示하였다.

<中醫內科辨症學><sup>56)</sup>에서는 腰痛病因을 外感으로서의 風寒濕熱痛, 痰痛, 血痛, 內挫 跌朴 內傷七情, 勞傷腰痛, 腎虛等の 十腰痛으로 區分하였는데, 風痛은 祛風하되 五積散·牛膝酒·敗毒散·五積交加散 等으로 主治하고 寒痛은 五積散類로 主之하며 濕痛엔 滲濕湯·腎著湯·不換金正氣散·濟生朮附湯·五苓散·七味蒼柏散·二

妙蒼柏散 等으로 對處하고, 痰痛은 加味二陳湯으로 主之하고 血痛엔 調榮活絡飲이나, 血虛者는 補血하며 閃挫跌撲엔 乳香鎮痛散類로, 內傷七情엔 七氣湯類로, 勞傷엔 黃耆建中湯類로 補하며, 腎虛腰痛엔 陽虛寒者는 腎氣丸으로, 虛火炎者는 陰虛證이니 六味·滋陰八味煎으로 主之한다고 述하였다.

以上에서 歷代醫家들의 理論을 綜合整理해보면 內徑에서는 腰痛의 性質·部位 및 放射範圍에 對해서 比較的 詳細히 敘述하고, 主要 病因을 腎虛로 보았는데 後世醫家들의 十之八九에 依해 引用되어 왔다. 그리하여 內徑에서는 寒과 濕과 더불어 腰<sup>40)</sup>痛의 三因으로 불리워져 왔으며, 治法에 있어선 主로 針刺法에 對해서 論하고 藥物에 對해선 言及을 찾아 볼 수 없다. 巢<sup>30)</sup>의 少陰·風脾·腎虛·腎腰墜墮·寢臥 濕地 等の 五因이 內經說과 더불어 五種 病因說 로서 因用되어 왔으며, 그 뒤에 李<sup>41)</sup>의 十腰痛說로서 集約·整理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腰痛의 病因을 敘述해 보면 風·寒·濕·熱의 外感說<sup>20. 28. 30. 32. 34. 35)</sup>, 澹<sup>41. 49. 51. 53. 54)</sup>, 瘀血<sup>34. 37. 38. 51. 53)</sup>, 閃挫跌撲<sup>30. 31. 32. 34. 35. 38)</sup>, 七情內傷<sup>41. 54)</sup>, 勞傷色慾傷腎經<sup>35. 41. 32)</sup>, 飲食傷<sup>41)</sup>腎虛 等으로 볼 수 있다.

巢<sup>30)</sup>는 처음으로 腰痛을 急慢性으로 分類하였으며, 孫<sup>31)</sup>은 導引法을 主唱하여 物理治療의 先驅者라 할 수 있으며, 李<sup>41)</sup>도 屈伸導法을 治法의 하나로 論述했다.

針刺法에 있어서 李<sup>33)</sup>는 經絡이 經過하는 部位에 出血시킴을 提案했는데, 龔信<sup>42)</sup>도 瘀血腰痛에 있어 委中穴에 出血함을 얘기했고, 李<sup>41)</sup>도 外感腰痛엔 三稜針으로서 委中에 出血함을 主張했다.

朱<sup>7)</sup>는 閃挫에 酒를 使用하였는데 載<sup>37)</sup>도 瀝血痛에 桃仁酒, 風痛에 杜仲酒의 併用을 얘기했고, 李<sup>41)</sup>·李<sup>38)</sup>·張<sup>43)</sup> 等도 風冷에 牛膝酒와 的 兼服을 얘기하여 治療效果를 倍加하려 하였다.

歷代 醫家들이 거의 다 本治에 主力한 腎虛腰痛의 治法에서, 먼저 補腎하는 藥物로는 杜仲·龜版·栢·知母·枸杞·五味<sup>34)35)</sup>·肉桂·當歸·羌活·天門<sup>43)</sup>·茴香·茸·羊腎<sup>40)</sup>·巴戟·補骨·續斷<sup>49)</sup>·川芎·附子·白芍·丹蔘 等이고, 陽不足으로 因한 汗症의 腎虛腰痛에는 腎氣丸·茴香丸<sup>33)</sup>·九味安神丸·鹿茸百倍丸<sup>41)</sup>·八味丸·畏腎丸<sup>41)</sup> 等의 方으로 補陽하고, 陰不足으로 因한 虛火證엔 六味丸<sup>40)</sup>·滋腎封髓丹·補陰丸·當歸丸·滋陰八味煎<sup>33)51)</sup> 等으로 補陰하였는데 景岳은 더욱 細分하여 寒證을 溫散해야 할 外感之寒證과 溫補해야 할 陽虛之寒으로 分하고, 熱證에서도 四物湯이나 滋陰八味煎으로 滋陰降火해야 할 肝腎陰虛 水毀火盛證과 大分清飲으로 直攻其火해야 할 邪火蓄結 腰腎證으로 區分하여 說明했다. 特히 景岳은 朱<sup>34)</sup>의 諸腰痛에 人蔘으로 補氣함이 不當하다 함을 辛辣히 批判하고, 陽不足時는 果敢히 人蔘을 用하여 補氣해야 하며, 火聚下焦하여 痛極時는 速히 清火하는 寒涼藥을 投與해야 함을 力說하였다.

腎虛 以外의 腰痛의 病因으로서 風으로 因한 風腰痛은 祛風散之<sup>31)62)</sup>하는 治法을 講究하고, 寒腰痛은 溫之하며<sup>35)56)</sup>, 風寒으로 因한 에는 發散風寒<sup>35)</sup>하고, 風熱엔 疏散風熱<sup>47)</sup>을 風濕엔 祛風除濕하며, 濕에는 祛濕<sup>43)</sup>, 濕熱엔 清熱利濕舒筋을, 寒濕엔 祛寒除濕<sup>56)62)</sup>하고, 氣痛엔 解鬱行氣<sup>38)</sup>하며, 閃挫跌撲에는 順氣行血을<sup>35)58)62)</sup>, 瘀血엔 順氣活血化瘀<sup>43)</sup>하고, 濕痰엔 祛濕化痰法<sup>41)</sup>을 敘述하였다.

#### IV. 結 論

1. 腰痛證의 病因을 內徑에선 腎虛·寒·濕의 三因을 들었고, 巢<sup>30)</sup>는 少陰·風痺·腎虛·腎腰墜·瘦臥濕地 等의 五種因說을 主張했다.
2. 腎虛 以外의 腰痛病因은 外感之氣의 風寒

濕熱·痰飲·瘀血·閃挫·跌撲·七情內傷·勞傷·飲食傷·色傷 等を 들 수 있다.

3. 腰痛의 治法으로선 祛風化痰·祛寒行濕·順氣活血·行血解鬱·清熱 等으로 要約할 수 있고, 가장 많이 使用된 治方은 五賊散을 들 수 있다.
4. 陰不足으로 因한 腎虛腰痛엔 腎氣丸·八味丸 等으로 補陽하고, 陰不足엔 六味丸·滋腎丸 等으로 補陰한다.
5. 張<sup>47)</sup>은 朱<sup>34)</sup>의 “不可用補氣”論에 拘碍받지 않고 陽不足의 腰痛엔 補氣해야 함을 主張했다.

#### 參 考 文 獻

1. 李圭雄 : 神經外科領域에 있어서의 腰痛, 대한의학 협회지 18:7 p27, 1975.
2. 文命相 : 腰痛의 生物力學, 대한의학 협회지, 18 : 7 p13.75
3. 박명문外 : 추원판성 요통의 역학 방사선학적 연구, 대한정형외과 학회잡지, 12:2 p122 1977
4. 박명문 : 腰痛의 原因과 治療, 대한 정형외과학회잡지 12:1, pl, 1977.
5. 김명훈 : 요통 환자의 통계학적 고찰,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 6 : 1, pl, 1985.
6. 台灣中華書局 : 辭海(下) 台灣 中華書局: 臺北 : 民國 63. p2375
7. 白泰潤 : 外科領域에 있어서의 腰痛, 대한 의학협회 18:7, P46, 1975.
8. 안종철外 : 成人腰痛患者의 腰椎部X線 所見에 의한 통계학적 考察, 대한정형외과지 11:1, P9. 29, 76
9. 洪元植編 : 精校黃帝內徑, 東洋醫學出版 P333, P1974
10. 上揭書 P37.
11. 上揭書 p229.
12. 韓長庚 : 易學原論, 學友社, 서울, P176,

檀紀4288

13. 安貞珣：針灸基礎學，行林書院，서울，부록편P12-22, 1970
14. 梁貞玉：腰痛의 針灸治療에 關한 문헌적 조사, 경희대학원1972.
15. 洪元植：精校黃帝內徑, 東洋醫學版, P37. 1974
16. 上揭書 P64
17. 洪元植編：精校黃帝內徑, 東洋醫學出版 P71, 1974.
18. 上揭書 P88.
19. 上揭書 P92.
20. 上揭書 P82
21. 上揭書 P98
22. 上揭書 P100
23. 上揭書 P149
24. 上揭書 P224
25. 上揭書 P229
26. 上揭書 P279
27. 上揭書 P333
28. 上揭書 金匱要略精解, 東洋通信大, 서울, P58, 65.
29. 上揭書 P91
30. 巢元方：諸病原候論, 國立中醫學研究所, 民國53年, 卷5 PP1-5.
31. 孫思邈：千金要方, 杏林出版社, 서울, 1976 P98.
32. 嚴用和：濟生方, 文淵閣四庫全書, 743卷, P449-524.
33. 李 昊：東垣十書, 五州出版社, 臺北, 1969
34. 周辰亨：丹溪心法, 杏林書院, 서울, 1965, P330
35. 虞 博：醫學正傳, 醫藥社, 서울, 1973. P362.
36. 上揭書 P369
37. 戴思恭：證治要訣
38. 李中梓：醫宗必讀, 上海衛生版, 上海, 1957. P301.
39. 上揭書 P. 303
40. 上揭書 P. 306
41. 李 梈：醫學入門, 翰成社, 서울, 1983, P466.
42. 龔 信：古今醫鑑, 醫部全錄：陳夢雷編 人民版, 北京
43. 張三錫：醫學準繩六要
44. 方 賢：奇效良方, 商務印書館, 香港, 1977
45. 吳 崑：醫方考
47. 張介賓：景岳全書, 翰成社, 서울, 1983, P478
48. 上揭書 P. 479
49. 上揭書 張氏醫通 中醫內科辨證學 王昌明 人民出版. 北京 1984, PP 217-2226
50. 上揭書
51. 上揭書 醫學心悟：中醫內科辨證學；王昌明 人民版 北京；1984, PP 217-226
52. 上揭書
53. 上揭書 雜病源流屬燭；中醫內科辨證學 王昌明 人民版, 北京 PP 217-226
54. 許 浚：東醫寶鑑 PP278-281
55. 原安徽中醫學院：中醫臨床手冊, 成輔社, 서울, 1983, P79.
56. 王昌明：中醫內科辨證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57. 上海中醫學院：傷科學, 商務印書館, P399-431.
58. 洪元植編：精校黃帝內徑, 東洋醫學版, 서울, P88, 1974,
59. 上揭書 P64
60. 上揭書 P82
61. 上揭書
62. 黃文東外：實用中醫內科學. 上海科學版, 上海 1986, P30